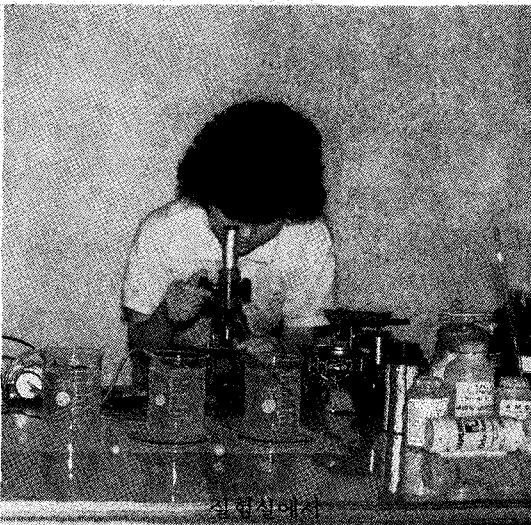


연구하는 환경기업

우림상사

■ 편집부

「제품PR보다 관리인들과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림상사 이상호(42세)사장은 환경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환경인이다. 이사장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후배와 친구를 만나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 1982년 환경약품 및 미생물 종균제를 판매하는 환경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 평소 책을 가까이 하던 이사장은 폐수 처리에 관한 책들을 독파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초창기때에는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경약품비를 적당히 절약하면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또한 폐수처리장을 두루 다니면서 관리인들에게 환경기술적인 문제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고 많은 환경기사들의 취업 알선에 노력하기도한 이사장은 지금도 수시로 환경관리인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최근 많은 환경약품 업체가 늘어나 환경 관리하는 사람들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진정 이나라의 환경 보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약품판매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림상사에서는 활성오니처리 종균제 L-IQUI-BAC를 비롯 방류수 살균소독제 정·폐수장고분자응집제, 무기응집제, 활성탄·폐수처리장약품, 실내수영장 약품 등 환경약품 일체를 취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공산품 표준규격은 있지만 아직까지 미생물 종균제에 대한 특별한 표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한다.

최근 첨단 유전공학으로 만든 「바이오라이트」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우림상사는 앞으로 부산이나 대전지방을 비롯 대리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늘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을 그의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사장은 오늘도 환경약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다.